

#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복음으로 여는 요한삼서-

시편 1:1-6, 요한삼서 1:1-2

정운돈 목사님

\* **시1:1-6**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니

\* **요삼:1-2**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정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행복하게 승리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성령충만 받아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기도제목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방법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성공이다. 다 사람이 이상하다. 사람들은 꾀를 쓰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렇게 살아야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체질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체질이기에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죄인과 악인의 길로 간다. 나를 망치는 길로 간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너무 나서고 교만한 사람도 오만한 사람이지만 너무 겸손한 것도 오만이다. 순종, 복종할 줄 모르고 기준이 ‘나인’ 경우가 오만한 것이다. 오만한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정말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과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이기거나 승리할 수 없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는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말씀이 즐거워진다. 이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 말씀의 성취를 받았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찾고 더 불행해진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일곱 램넌트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족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니 계속 불행하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는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한다. 작은 것 속에서 받은 바 행복과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끝난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된다. 우리에게는 영광 혼

과 육신이 있다.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상태이고 성령이 임하는 상태다.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성령이 믿어지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자신 없고 양심적이어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반대로 천국갈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 또, 영이 구원받은 상태와 영이 잘되는 상태는 다르다. 영이 잘되는 상태는 믿음이 좋은 상태를 말한다. 믿음도 초급과 중급과 초특급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이오처럼 모든 성도와 제자들의 식주인이 된다. 헌금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성장한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는다. 혼은 필가? 혼은 마음과 생각, 지식이다. 혼이 잘되는 사람은 정신이 바르고 합리적이고 마음이 착하고 생각이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 없나?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이 다 잘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와 성격과 인격을 다 갖춰야 한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다. 오늘 가이오가 그런 인물이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알아야 한다. 정리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믿음을 구하고 인격 구하고 영혼이 훈련스러워진다. 그러나 영혼이 잘되고 거듭나고 변화하고 성장하면 전도에 유익해진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진다. 왜 그럴까?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면 불행해 진다. 자식과 부모님에게 기대지 마라. 기대는 만큼 절망이 크다. 그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마음이 병들면 어떤 약과 건강보조식품도 들어오지 않는다. 몸을 다 죽여 버린다. 그러니까 더 감사해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세계복음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와 말씀운동을 못한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을 때 그 힘으로 음식관리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할 때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삼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다. 요한삼서는 이 사도요한이 가이오라는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와 목회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중직자였고,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리스도의 망대였다.

## 1. 요한삼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한삼서를 쓴 사실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디오드레베’라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분은 장로님이다. 교회에서 역할이 있는 분이였다. 그런데 그는 교회 안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사람이였다.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류목사님이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율법주의자들은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디오드레베는 자신 밖에 몰랐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였다. 저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분을 교회 안에서 다들 싫어한다. 1장 9절에 보면 그는 “오뜨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직자인 여러분을 어디 소개할 때 어떻게 기록하겠나. 제가 참사랑교회 안에서는 말 안하지만 해외 가면 여러분의 장단점을 다 말한다. 여러분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여러분은 스스로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나. 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채워 나가야겠다. 국가시험에서 과락이 있듯이 디오드레베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과락된 부분이 있었. 교회에서 주인행세 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였다. 디오드레베는 순회전도캠프를 하던 사도 요한과 전도팀이 그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을 거절하였다. 이분이 교회 살림과 재정을 너무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거나 후원해 달라고 하거나 외국에서 누가 올 때 싫어한 것이다. 도와주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돈 들고 힘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중직자 장로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모두 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중직자가 아닌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가 되시기 바란다. 아마 그는 그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다니는 사람이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헌신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광야생활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도들과 전도자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눈엣가시와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자세는 누구든지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르다. 교회와 램네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영적으로, 삶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때 받아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쫓아야 한다. 교회는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장로 식주인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과 중직자 여러분도 사실적으로 전도자들과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사실적인 내용이 모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 요한이서에도 '부녀어'라고 했다. 요한이서의 부녀도 똑같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으로 오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미션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은 전체를 보면서 헌신해야 한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더 알아준다.

(2) 그런데 다행히도 그 교회에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그 두 사람을 칭찬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이 가이오와 1장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이다. 여러분은 모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①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중직자였다. 요한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목회자가 봤을 때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이 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이전에 목회자가 봤을 때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는 인턴십의 현장이다. 일하면서 순종하고 꾸지람을 들으니까 직장생활에서도 교회에서처럼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사랑받는다. 조금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라. 여기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교회 안과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② 가이오는 영적 상태, 즉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③ 그래서 당연히 가이오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받았을 것이다. '가이오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이오는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건강하고 부자였으면서 헌신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성도를 너와 같이 만드라는 미션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삼서 1장 2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 함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받았을 것이다. 최고의 건강법은 가이오건강법이다.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해라. ④ 또한 가이오는 요한이서에 나온 '부녀처럼 영지주의와 이단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참 복음과 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전도제자였다. 신천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다. 그만큼 무지하다. 성경에는 항상 이단들이 나온다.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명품에는 짝퉁이 많기 때문이다.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계시로 주신 진리이고, 그 진리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루터나 칼빈이고,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단들은 그 교리에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교리를 만든다. 일반 사람들은 그 교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⑤ 그는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진리와 삶과 복음도 잘 되었던 사람이다.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 잘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였다. 참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⑥ 또한 가이오는 순회캠프전도자들을 잘 보살피 주었고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후원해 주었다. 순회전도자들은 돌아와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보고를 드렸다.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이다"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인사를 잘해서 보낸다는 말이 아니다. 방금 읽은 요한삼서 1장 6절 후반절의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서 떠나 보내는 것이 좋겠다." 즉, 가이오 장로는 순회캠프팀의 여비와 경비를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식주인의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것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⑦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제자도 있었다. 그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A급 교리, B급 교리가 있다는 책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과 관련된 게 A급 교리, 기운을 입어야 한다는 것처럼 하면 좋은 게 B급 교리다.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당과 악기도 다 도움이 된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복음중심, 선교중심, 전도중심하면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데메드리오도 약간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

다. 그리스도니까 다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요한 사도가 대언해 준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내용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한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데메드리오가 강조해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가 벗어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과하게 강조를 하니가 말들이 나오지만 진리가 틀리지 않으니 보 호해 주라는 말이다.

## 2.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또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1)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말씀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씀성취의 증거를 할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의 근본뿌리가 복음이어야 한다. 근본뿌리가 '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변질된다. 근본뿌리가 말씀이면 문제 왔을 때 오히려 성장한다. 계속해서 24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방법이다.
- (2) 그리스도로 끝날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결론내면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실 수 없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 바란다.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신다. 복음 가진 나라들이 다 그 응답을 누렸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 방향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절대목표이다.
- (3)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비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는 절대방법이기 때문이다. 강단메시지에 순종,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오프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사단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한다.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 속는 것이다. 다 훌륭하지만 그게 제일 안 된다. 그걸 깨부셔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보같고 틀린 목사님과 부모님께 순종할 때 축복 주신다. 그 태도가 중요하다.
- (4) 네 번째로 성도들과 후대들과 전도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긴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것이 내 영혼이 잘되는 중요한 방법이며 전도자의 삶의 방향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은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지키는 5가지 RUTC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이 5가지 RUTC가 우리 교단의 절대목표이고 미래를 위한 절대망대이다. 즉, 이 RUTC운동을 통하여 참으로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과 후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 (1) 제1RUTC이다. 제1RUTC란, 남은 자를 훈련시키는 모임, 즉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복음훈련과 전도훈련을 의미한다.
- (2)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제2RUTC란, 회당, 서원과 같이 현장과 지역마다 말씀운동을 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즉, 복지, 교육, 문화, 상담, 세 가지 뜰, 그리고 복음훈련을 위한 센터를 의미한다. 공간이 필요하다. 정말 응답을 받으셔서 헌당을 끝내고 센터와 빌딩도 만들어야겠다.
- (3) 제3RUTC는 복음 가진 중직자와 램네티들이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빛을 발하게 하는 비밀결사대운동이다. 우리 램네티 후대들이 다 준비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만드는 운동이다.
- (4) 제4RUTC운동이란,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와 단체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운동이다. 치유의 대상으로는 이단, 종교, 명상 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있다.
- (5) 제5RUTC운동이다. 이는 또 다시 복음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전도운동을 막는 미래를 대비하는 운동이다. 제5RUTC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램네티와 후대들이다.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있으니까 다 회복하게 된다. 우리 램네티 중에서 다니엘과 에스더같은 램네티가 한 사람만 있어도 다 회복하게 된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가이오처럼 교회의 파수꾼이며, 생명운동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삼서를 통해서 가이오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와 같이,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이, 일곱 램네티와 같이 쓰임받도록 하시고 후대들에게 정말 축복주셔서 237을 살릴만한 경제와 전문성의 응답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보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